

‘우리이웃’도 北용천으로 달려갔습니다

밤늦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 속의 목소리는 범조집장인 이항수 기자. 그러나 그의 입에서 다급하게 나온 말은 검찰이나 재판과는 전혀 무관한 토끼이었습니다.

“선배! 막연히 슬퍼하고만 있으면 안되지. ‘우리이웃’이 이제 북한으로 달려가야합니다.”

‘용천’과 ‘우리이웃’의 만남... 그의 말처럼 ‘우리이웃’은 북한 용천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을 신고서 말입니다.

◆ “네트워크를 가동하라”

이항수 기자는 조선일보 새해 1월 1일자부터 보도된 ‘우리이웃’ 기획 시리즈를 저와 함께 취재한 팀 동료였습니다. ‘우리이웃’은, 지면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소외된 이웃의 삶을 돌아보는 취지의 기획입니다.

기사뿐만 아니라 실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봉사단체·기업체를 중심으로 ‘우리이웃네트워크’가 지난 2월 결성됐습니다. 우리이웃네트워크는 50억원 규모의 공부방 사업을 비롯해 지하방에 환풍기 보급, 자활을 위한 나눔은행 운영, 무의촌 의료지원, 독거노인·청소년 결연사업 등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출근했더니 ‘우리이웃’ 시리즈 에디터인 김종래 부국장은 특유의 육타브 높은 목소리로 “우리이웃 네트워크를 가동할 때가 왔다”고 편집국이 떠나갈 듯 소리치더군요.

우리이웃네트워크 참여단체인 인터내셔널에이코코리아(IAK)는 화상 치료제인 실바텐크림과 항생제 등 100억원대의 의약품을 보냈습니다. 이 단체 김치운 대표(계명대 교수)는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도와야 하는 것이 구호단체들의 책무”라며 “우리이웃 네트워크의 활동을 북한에서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이웃네트워크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참여단체인 월드비전, 대한적십자사,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북으로 가는 ‘우리이웃’. 우리이웃네트워크 참여단체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단장 조현삼 목사)이 지난 4월 말 북한 용천 사고현장의 이재민들에게 보낼 콩 15t을 중국 단둥 화물보세구역에서 옮기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구호물품을 북으로 보내려는 봉사단원들의 표정이 밝다. 단둥=최순호기자 choish@chosun.com

100억원 의약품 전달... 본사 모금한 성금 8억원도 “힘내” “상처 지워지길”... 情담은 편지도 함께 보내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등 덩치가 큰 단체들이 앞다퉀 북한 용천 주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특히 우리이웃네트워크의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는 ‘범보건의료계 용천의료지원단’을 구성해 100만달라 상당의 의료장비를 북에 지원하고 공동모금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우리이웃’ 로고가 선명한 구호물품을 실은 트럭이 북한으로 떠나는 사진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개인의 작은 성금도 이어졌습니다. 서울학교 때 숙제로 매일 사설을 읽고 하나의 문단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있었다. 나는 세로쓰기로 인쇄된 조선일보의 사설을 매일 매일 조심스럽게 오려내, 종이 한 장씩 퍼서 공책 한쪽에 붙이고, 그 글이 한 문단으로 정리될 때까지 몇 번이고 읽기를 반복했다. 당시에는 사실과 사실의 구분을 제대로 할 수는 없었고, 다만 멋진 글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글쓰기를 익히려는 데만 급급했던 것 같다.

하지만 숨이 턱에 차서 사설을 읽던 그 때보다, 지금은 신문읽기에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세상에 다양한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신문을 읽는 재미도 늘었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무릎을 탁 치며 맞장구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글들과 함축적 의미를 비교해봐서 신문을 몇 배로 재미있게 읽고 있다.

그러다가 인터넷 신문이 출현했고, 사람들은 ‘권위의 표상’인 종이 신문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이라는 신매체의 파괴력이 종이 신문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커보였던 것이다. 금방이라도 기존 신문사들은 문을 닫고, 정보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

상금 500만원을 우리이웃 네트워크에 기부하며, “북한의 용천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이웃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1억원을 용천 주민 돕기 성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까지 조선일보를 통해 모두 8억 6635만여원의 독자 성금이 접수됐습니다. 이 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용천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 기지도 많이 울었습니다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정도 나누었습니다. ‘우리이웃 네트워크’는 서울 도곡1동 연주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용천초학교 친구들에게 쓴 편지도 북측에 전달하려 합니다.

“참 무서웠겠다. 정작 집도 없어

지고 갈 데도 없으니가 앞이 캄캄하겠지.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강건우)

“아플 때 그 고통을 참아내는 법 알려줄까? 눈을 감고 날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힘내! 만약 통일이 된다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치?”(김경민)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지우개야. 이걸로 네 마음에 남은 상처 지워지길 바래.”(김소연)

제가 사고 다음날 ‘북 열차참사 피해자도 우리 이웃이다’란 칼럼을 쓰자, 일부 안티세력은 “조선의 북 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용천초학교 친구들에게 쓴 편지도 북측에 전달하려 합니다.”

“참 무서웠겠다. 정작 집도 없어

습니까. 조선일보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반대해온 일이 없습니다.

기자 생활 16년2개월 동안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몇번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 때문이었죠. 그런데 올 들어 저는 기자 생활 전체 기간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맡은 ‘우리이웃’ 시리즈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2004년 대한민국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 어린이, 우동이 된지도 모르고 자라는 결식아동, 선원 남편을 함께 잃은 주부의 고단한 삶...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보도하면서 눈물이 저절로 주름줄 흘러내렸습니다.

조선일보 ‘우리이웃’ 취재팀은 용천에 이어 최근 ‘배고픈 아이들’ 시리즈를 통해 결식아동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후속보도를 통해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사랑을 실어 나르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진성호 미디어팀장·전 ‘우리이웃’ 취재팀장

‘조선일보 역사 단숨에 읽기’를 읽고

양교석 공주 한일고 교장



우리나라가 이민족의 침입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유구한 역사를 지켜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치력·경제력·군사력이 아닌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 민족은 역사적인 교훈을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옛날이나 현재나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선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집중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역사 수업시간이 짧아지면서 고대·중세를 거쳐 마지막에 가르치는 근현대사는 소홀히 다루지는 경향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선생님들에게 “근현대사를 더 자세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현대사를 제대로 조명한 자료들이 마땅치 않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조선일보에서 보내준 ‘조선일보 역사 단숨에 읽기’를 보고 반가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단 역사 선생님들에게 책을 돌려 보시라고 추천했으며, 각 교실에도 비치할 수 있

육을 했겠습니까.

1937년부터 1940년 폐간 때까지 신년호에 일장기와 일왕 부부 사진을 1면에 실었던 것도 당대의 신문들이 강압에 의해 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폐간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은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현상을 너무 단순화시켜 생각하는 소아병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 책을 보면서 조선일보에 대해 오해했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조선일보가 친일파인 대정실업친목회의 후원을 받아 창간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민족

이봉창 의사를 ‘범인’이라 썼다고 ‘친일지’라 공격하는 건 역사왜곡... 당시 상황을 잘 헤아려 볼 필요있어

도록 조선일보에 추가 배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3·1운동 직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잇따라 발행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이 있어도 말 못한다는 것, 군사독재 시대를 겪었던 분들은 그 아픔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철학·장막과 같은 절망의 일제 시대에서 유일하게 민족의식을 고취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당시 사실상의 ‘한국 정부’와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조선일보가 ‘친일 신문’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단편적으로 바라볼 경우 심각하게 이를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이 따릅니다. 가령 히로히토 일왕을 향해 수류탄을 던져 사형당한 이봉창 의사를 조선일보가 ‘범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상황에서 범인이라고 쓰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전국에 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당시 독립투사들이 이봉창을 ‘범인’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조선일보에 대해 ‘친일지’라고

주요적인 기자들의 지속적인 항의로 인해서 그들이 곧 발을 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기자들은 연이은 정권 명령과 자금난으로 창간 첫 해에 150여일 동안 신문을 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일파와의 관계를 끊었던 것이죠.

그중에서도 저는 문자보급운동 등 조선일보가 일제 시대에 전개한 문화 운동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유구한 역사를 계속 향유하기 위해선 문화의 힘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가 한민족 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양교석 교장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국사 교사로 서울 대광고, 창문여고 등에서 35년 동안 교편을 잡았다. 저서로는 1866년 병인양요때 강화도를 침공한 프랑스로를 정족산성에서 무찌른 양현수의 일기를 한글로 번역한 책이 있다.

‘조선일보 역사 읽기’ 책은...

암흑기 抗日역사 담아 조선일보 80年史 압축본

“조선일보는 우리를 물어뜯는 광적(狂的) 신문이다.”

이런 말을 했던 일제시대의 ‘안티조선’은 다름아닌 조선총독부였습니다.

1920년 창간된 조선일보는 창간 직후부터 “조선 민족을 ‘왜놈’이 총과 칼로써 쏘아 죽이려 한다”는 말로 일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강자(强者)가 무력으로서 약자(弱者)의 살을 뜯어먹는 시대는 지났으니 민족자결을 결행하라”는 위협적인

만한 논설을 서슴없이 실기도 했습니다. 1940년 강제 폐간되자 만해 한운운은 ‘붓이 꺾여 모든 일이 끝났다’는 시로 한탄했으며, 광복 이후 북한되자 백범 김구는 ‘뜻이 있는 자는 끝내 이룬다’고 친필 휘호를 보냈습니다. 지난 3월 5일에 발간된 ‘조선일보 역사 단숨에 읽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0년에 출간한 ‘조선일보 80년사’의 간편한 압축본입니다.

문의전화는 (02)724-5053



윤승이 박사는

1975년생. 20대 나이로 SK텔레콤 임원(상무·CI부문 TF장)에 기용돼 화제를 낳았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를 수석 졸업하고, 인공지능을 전공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에서 24세 나이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가 보유한 국내 최연소 박사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현재 정보통신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CI(통신지능)를 연구 중이다. 동성 윤하얀(하버드대학 분자생물학 박사과정)과 함께 ‘한국 최강의 과학자매’로 꼽힌다.

“초등학교때 조선일보는 교과서였죠”

윤승이 SK텔레콤 상무가 본 조선일보

어렸을 적 종이 신문은 그야말로 권위 그 자체였다. “조선일보에 그렇게 쓰여 있던 걸” 하고 들이대는 것은 더 이상 반박의 여지가 없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였다.

초등학교 때 숙제로 매일 사설을 읽고 하나의 문단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있었다. 나는 세로쓰기로 인쇄된 조선일보의 사설을 매일 매일 조심스럽게 오려내, 종이 한 장씩 퍼서 공책 한쪽에 붙이고, 그 글이 한 문단으로 정리될 때까지 몇 번이고 읽기를 반복했다. 당시에는 사실과 사실의 구분을 제대로 할 수는 없었고, 다만 멋진 글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글쓰기를 익히려는 데만 급급했던 것 같다.

하지만 숨이 턱에 차서 사설을 읽던 그 때보다, 지금은 신문읽기에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세상에 다양한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신문을 읽는 재미도 늘었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무릎을 탁 치며 맞장구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글들과 함축적 의미를 비교해봐서 신문을 몇 배로 재미있게 읽고 있다.

그러다가 인터넷 신문이 출현했고, 사람들은 ‘권위의 표상’인 종이 신문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이라는 신매체의 파괴력이 종이 신문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커보였던 것이다. 금방이라도 기존 신문사들은 문을 닫고, 정보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

종이신문은 인터넷과 공존 전통과 신뢰 갖춘 조선일보 온라인서 길잡이 역할할 것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아 보기 힘들다. 종이 신문은 사라져가고 있다기보다는 인터넷 신문과 자연스러운 공존 관계를 이루어 가는 방법을 모색해 가고 있다고 보는 편이 오늘날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가까울 것이다.

오히려 조선일보의 가능성은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프라인 매체에 권위와 신뢰성을 갖추고 실린 기사들은 온라인에서 더 많

은 사용자들에 의해 서로 교환, 전달되고 있다. 이제 조선일보라는 이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독자들에게, 심지어 기사가 쓰여질 당시에는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여러 번 보여지고 있다.

조선일보와 같은 신뢰와 전통을 가진 기존 매체는 앞으로 익명성이 난무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방향성을 잡아 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곧, 미디어 융·복합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 기기와 채널은 지금의 종이와 인터넷 신문의 공존이 가져온 혼란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상태를 만들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혼란이 오더라도, 조선일보의 영역은 있으리라고 믿는다. 인터넷 매체가 등장하면서 치열한 자기고민을 통해 새롭게 한 고유의 경쟁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간다면, 조선일보는 지속적으로 스스로의 영역을 유지해가며 새로 등장하는 매체들과 발전적으로 공생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켜본 바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변하지 않는 가치는 값은 수고와 노력으로 지켜온 신뢰, 이를 지켜갈 수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 그리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조선일보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의 매체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맛있게 익어온 나의 ‘신문 읽기’의 즐거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